# CUDA Raytracing을 이용한 voxel 오브젝트 가시성 검사

유영천

https://megayuchi.com

Tw: @dgtma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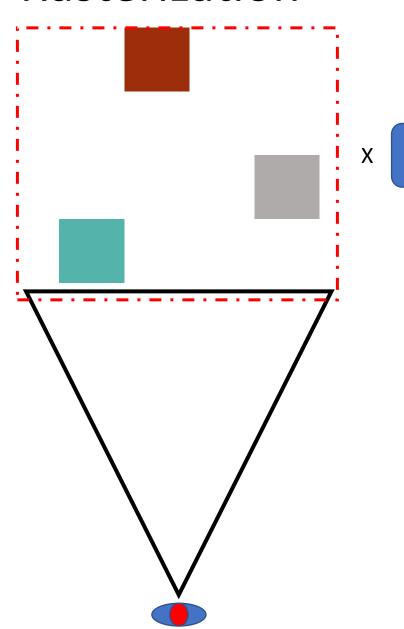


## 도형을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

- Rasterization
- Ray Tracin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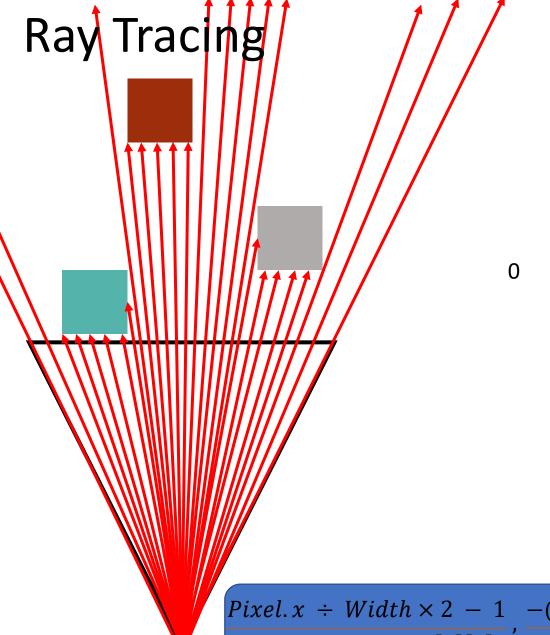


#### Rasterization



View X Projection Matrix







 $\frac{Pixel. x \div Width \times 2 - 1}{projection \ matrix[0][0]}, \frac{-(Pixel. y \div Height \times 2 - 1)}{projection \ matrix[1][1]}, 1, 0$ 

 $View \text{ matrix}^{-1}$ 

## 가장 앞의 픽셀을 그리는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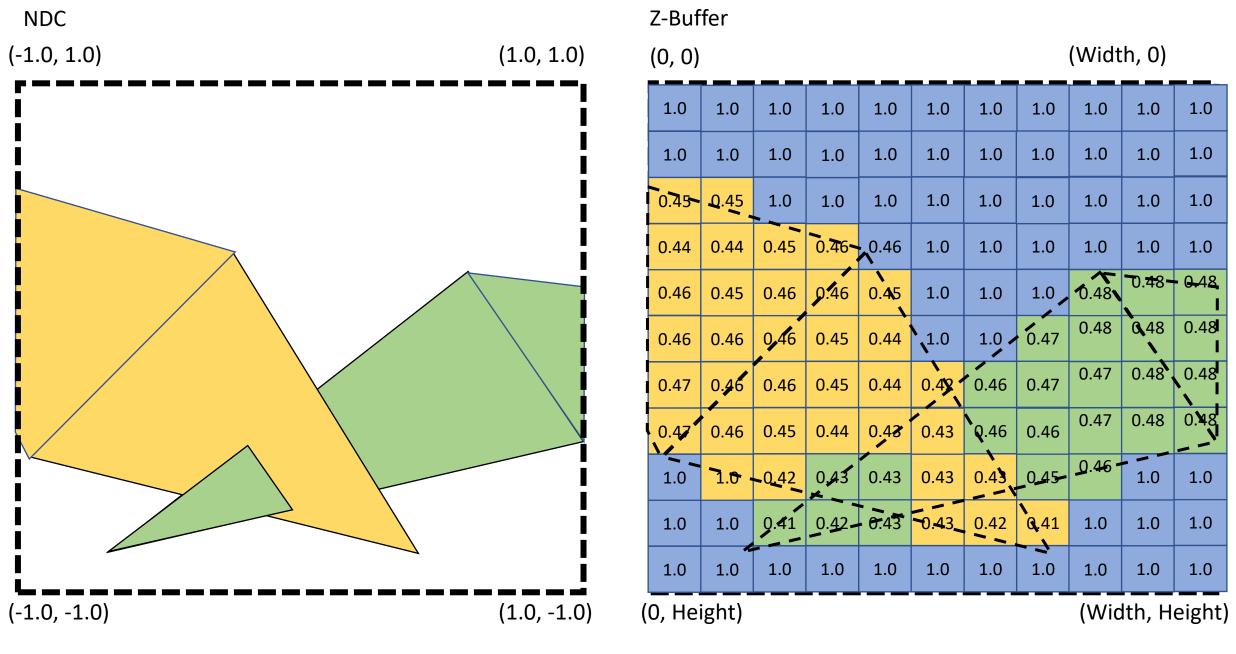
#### Rasterization

- 기본적으로 모든 매시는 순서 없이 그린다.
- Z-buffer를 이용해서 가장 앞에 있는 픽셀로 덮어쓴다.
- 삼각형->WVP 변환 후 얻은 z값을 z-buffer에 기록. 현재 z값이 기존 z값보다 작으면 기존 픽셀을 덮어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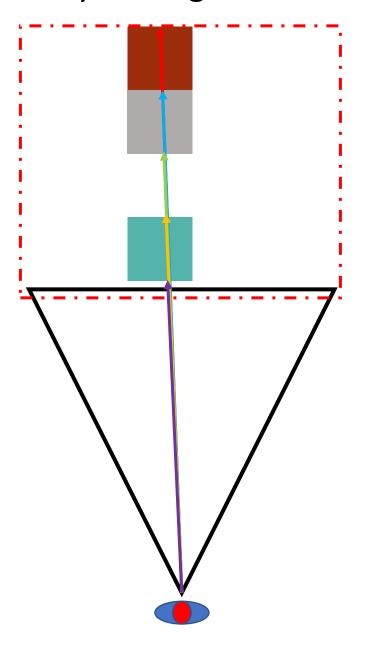
#### **Ray Tracing**

- depth버퍼 없다.
- Ray가 발사됐을 때 Ray마다 가장 앞에 있는 픽셀을 찾아낸다.

#### Rasterization



#### Ray tracing에서 어느 오브젝트, 어느 삼각형이 앞에 있는지 어떻게 알지?



#### 쉬운방법

- Ray 하나당 모든 오브젝트를 순회한다.
- Ray가 많아지면 당연히 미친듯이 느려진다.

#### KD-Tre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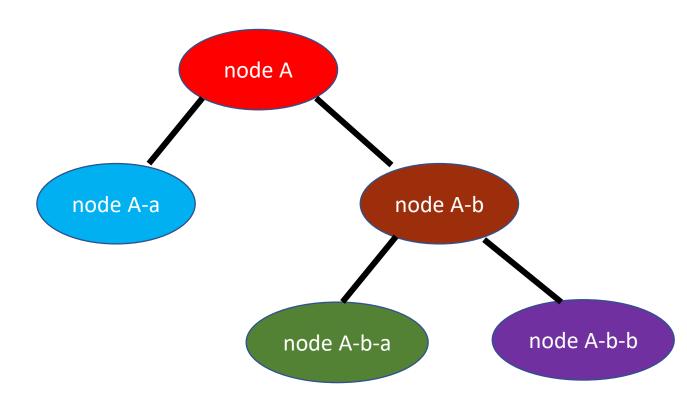
- X,Y,Z 축에 정렬된 BSP Tree.
- 각 node를 3가지 축과 축방향의 거리 D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.
- KD-Tree를 탐색할 때 카메라로부터 가까운 node와 먼 node를 찾을 수 있다.
- Ray의 교차판정 등에 많이 사용한다.
- Near node와 Far node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Quad-Tree와 별 차이는 없다.
- 게임의 월드를 KD-Tree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.

#### KD-Tree를 이용한 가장 가까운 오브젝트 탐색

- root node가 ray와 충돌하지 않으면 순회 중지.
- 현재 node의 자식 node 2개중 한 개만 ray와 충돌할 경우 충돌하는 노드를 방문.
- 현재 node의 자식 node 2개가 모두 충돌할 경우 먼 node를 stack에 push하고 가까운 node를 방문.
- 방문한 node가 leaf일 때 leaf에 들어있는 매시의 삼각형들에 대해서 ray와 충돌체크. 현재 leaf에서 충돌한 경우 t값을 저장하고 순회 중지.
- 방문한 node가 leaf일 때 어떤 삼각형도 ray와 충돌하지 않는 경우 stack에서 node포인터를 꺼내서 방문.

# node A node A-b-b i node A-b-a node A-b node A-a

#### **KD-Tree Traversal**



# 가시성 검사에 응용

#### S/W Occlusion Culling

- 적당히 작은 사이즈의 버퍼에 최대한 간소화된 방법으로 매시를 그려본다. 이 과정에서 얻은 depth값을 버퍼에 기록.
- 오브젝트 또는 트리의 node/leaf를 depth버퍼에 대해 z-test.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넣기 전에 이 단계에서 가려지는 오브젝트를 걸러낸다.
- 이것을 GPU에서 처리하면 H/W Occlusion Culling.
- S/W방식(CPU에서)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GPU와의 통신시간을 트리 탐색중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.

## 복셀 월드에서의 S/W Occlusion Culling

- 복셀 지형 특성상 안이 꽉 차 있고 모양이 복잡하다.
- 복셀 오브젝트간 가리고 가려지는 상황이 엄청 빈번하다.
- S/W Occlusion Culling을 시도했을때 depth를 써넣고 테스트 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.
- 복셀 오브젝트 개수만 해도 5-10만개씩 되기 때문에 이미 수집한 5-10만개의 오브젝트에서 보이지 않는 오브젝트를 제거할때도 생각보다 CPU시간을 많이 소모한다.
- S/W Occlusion Culling에 적합한가?

## Ray Tracing을 이용한 가시성 검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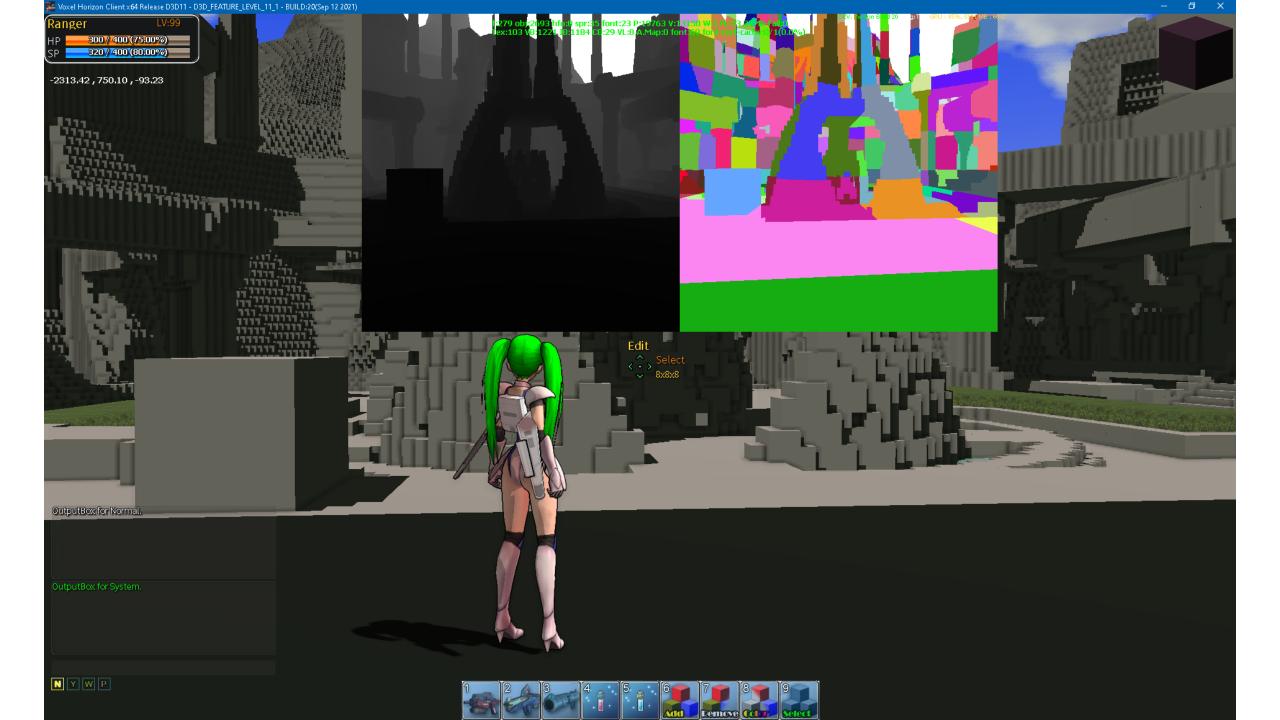
- Ray Tracing에선 처음부터 가려지는 픽셀-오브젝트는 그릴 일이 없다.
- Z-test도 필요없다.
- Ray를 쏴서 충돌하는 픽셀의 컬러값 대신 충돌한 지형지물의 오브젝트 ID 또는 leaf의 ID를 기록하면 정확히 보이는 오브젝트 목록만 얻을 수 있다.

#### Ray Tracing을 이용한 가시성 검사-복셀월드

- 복셀 오브젝트당 삼각형 개수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.
- 변경/삭제가 빈번하지 않다.
- 복셀 오브젝트 변경시 트리를 재구축할 필요없이 leaf의 삼각형만 갱신해주면 된다.
- S/W Occlusion Culling으로 보이지 않는 오브젝트를 제외시키기보다 Ray Tracing을 이용해서 보이는 오브젝트만을 골라내는 편이 더 효율적이다.

#### Ray Tracing을 이용한 복셀월드의 가시성 검사

- 1. 메모리에 적당한 사이즈의 화면 버퍼를 만든다(ex: 512×512)
- 2. view matrix, projection matrix를 이용해서 각 픽셀로부터 월드공간의 ray를 만든다.
- 3. 각 픽셀에서 출발한 ray로 복셀 오브젝트들로 구성된 KD-Tree를 순회하며 ray가 충돌하는 가장 가까운 오브젝트를 찾는다.
- 4. 오브젝트를 찾으면 화면 버퍼에 오브젝트의 ID를 기록한다.(테스트 시에는 depth값-ray가 충돌했을 때의 t값)
- 5. 버퍼의 기록된 오브젝트 ID를 가지고 렌더링 될 복셀 오브젝트 목록을 만든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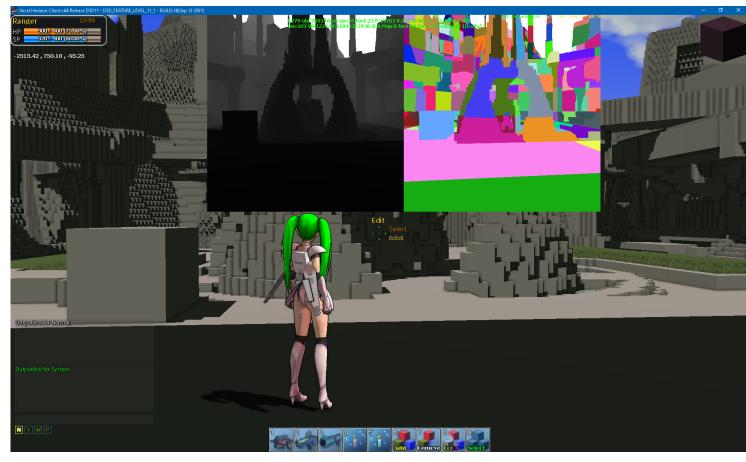


#### CPU vs GPU

- CPU로 구현하면 안되나?
- CPU로 구현해보자.

[i7 8700k 6 cores - 12 threads]

Single Thread - 2408.62 ms
Multi Thread - 12 thread(HT enabled) - 353.59 ms



#### 60프레임을 위해서는 16ms를 초과하면 안된다! CPU로는 무리!

# CUDA로 구현

#### CUDA를 이용한 구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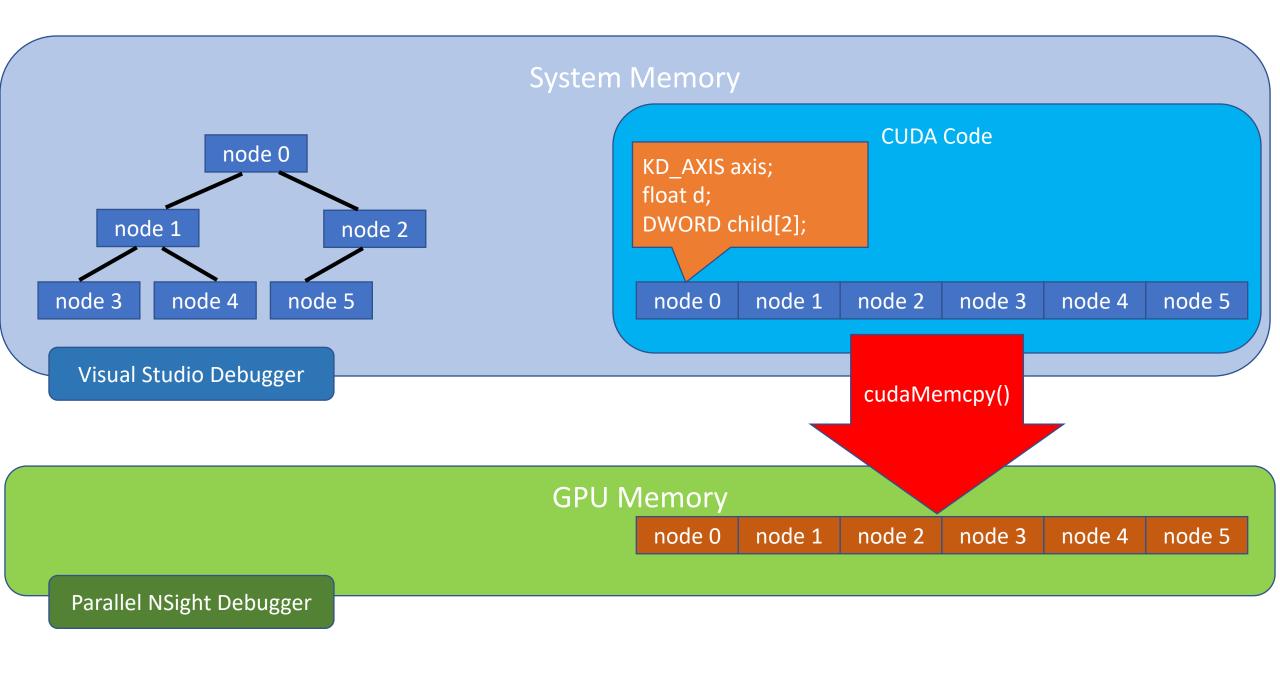
- CPU로는 너무 느리다. GPU를 사용하자.
- DirectX Raytracing API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. 그러나...
- GTX 900시리즈 같은 DXR 지원 안하는 GPU에서도 성능 향상을 보고 싶다.
- 그래픽 API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.
   예를 들면 서버라든가.
- 그렇다면 CUDA를 사용한다.

#### 기본 구현

- 트리 재구성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트리는 최대 depth만큼 미리 빌드해 둔다.
- 트리는 어차피 CPU측에 먼저 구현해야 한다. (picking, CPU를 이용한 오브젝트 수집 등)
- GPU측(CUDA memory)에 트리 전체를 업데이트.
- 복셀 오브젝트가 추가/삭제/변경 될 경우 CUDA측 트리의 leaf내용만 업데이트.
- Raytracing을 이용한 depth, Object ID를 저장하는 코드는 CPU 코드로 먼저 작성한다. 1)검증, 2) 포팅 용이함을 위해서다.

## GPU측에 KD-Tree구현하기

- KD-Tree 순회 코드는 CPU코드를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.
- CUDA는 device memory와 host memory를 구분하므로 트리를 구축할때는 간단하지 않다. 팁을 제시하자면...
  - 1. cudaMallocManaged()를 사용한다. 가장 쉽다. 하지만 느리다.
  - 2. cudaMalloc()/cudaMallocHost()를 이용해서 구현한다.
    - a. Host메모리에 먼저 구현. 트리를 배열로 표현.
    - b. 각 노드는 child node를 저장할때 포인터 대신 node 배열에서의 index로 저장.
    - c. 똑같은 사이즈의 Device메모리를 만들어서 host->device로 한번에 카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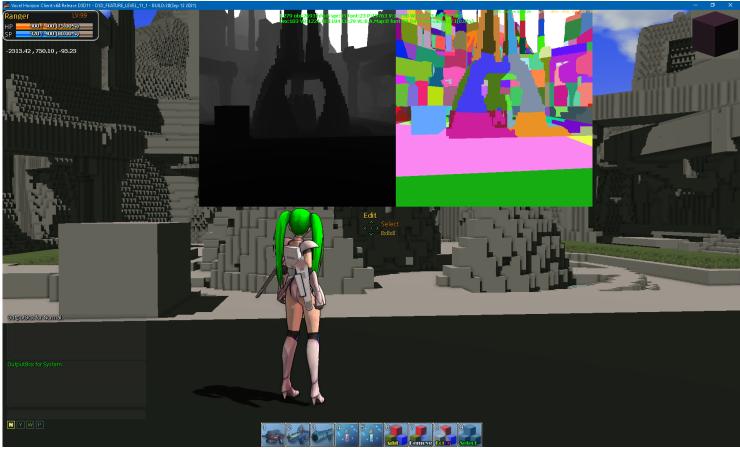


#### 성능 테스트

[i7 8700k 6 cores - 12 threads]

Single Thread - 2408.62 ms
Multi Thread - 12 thread(HT enabled) - 353.59 ms

CUDA(GTX970) - 12.2468 ms



#### 60프레임 가능! 사용 가능!

## 성능 테스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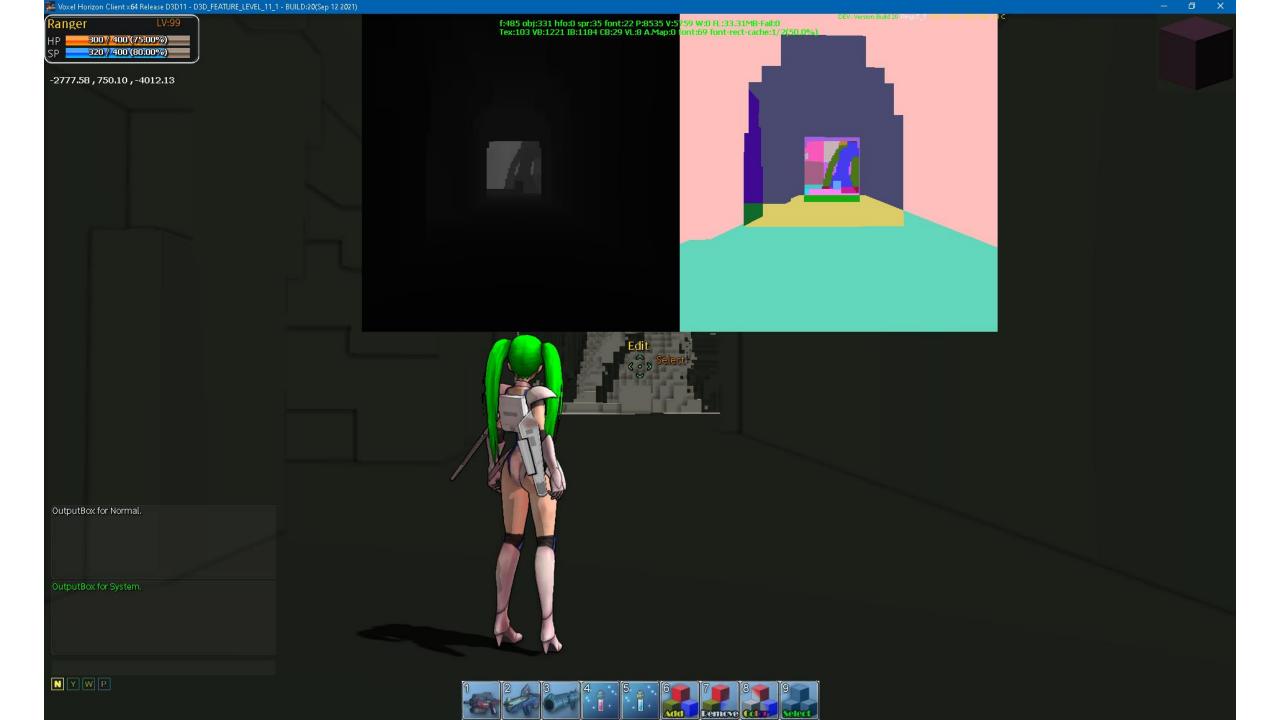
	SW Occlusion Culling	CUDA Raytracing (GTX970)	delta
DX11 (1920x1200)			
렌더링된 오브젝트	3580	2428	-32%
카메라 정지시 FPS	294	345	+17%
카메라 이동시 FPS	220	246	+11%
DXR (1920x1200)			
렌더링된 오브젝트	2675	1873	-29%
카메라 정지시 FPS	20	21	+5%
카메라 이동시 FPS	19	19	0%

## 오차 문제

- Ray Tracing버퍼의 해상도가 512x512정도면 충분한가?
  - 일반적으로 게임 해상도는 1920x1080이상이므로 512x512버퍼의 Raytracing테스트로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.
  - 멀리 있는 오브젝트들의 앞뒤 관계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.
  - 그렇다고 게임의 네이티브 해상도와 일치시키면 너무 느리다.

## 오차 문제 - 해결안

- Ray Tracing버퍼의 해상도가 512x512정도면 충분한가?
  - 일반적으로 게임 해상도는 1920x1080이상이므로 512x512버퍼의 Raytracing테스트로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.
  - 멀리 있는 오브젝트들의 앞뒤 관계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.
  - 그렇다고 게임의 네이티브 해상도와 일치시키면 너무 느리다.
  - 오브젝트의 ID대신 KD-Tree의 leaf의 ID를 저장한다.
  - 다소의 불필요한 렌더링을 감수한다. 오차를 줄인다.



## 제약사항

- nvidia GPU 한정
- GPU 성능 요구사항

## 생각해볼주제

- CUDA 최적화
- OpenCL로의 포팅
  - 디버깅 환경이 거지같지만 포인터가 있으니 '의지'가 있다면 가능.
- Compute Shader로의 포팅
  - 이론상 불가능하진 않지만 포인터가 없기 때문에 꽤~~~~ 빡실듯.

## 참고자료

• <a href="https://graphics.stanford.edu/papers/gpu">https://graphics.stanford.edu/papers/gpu</a> kdtree/kdtree.pdf